

歸鄉農家の 發生原因과 適應過程

우 종 현*

본 연구는 영농을 목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귀향농가의 발생이유와 그들의 적응과정을 미시적 사례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1980년대 이전의 귀향농가 발생은 가족 부양이나 도시적응실패 등의 사회적 원인이었지만 최근의 귀향농가 발생은 재배작물의 수익성을 고려한 경제적 원인이 더 크게 작용된 결과이다. 귀향농가의 발생유형은 이촌 후 고향으로 귀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적인 영농경험이 없는 도시거주자가 수익성을 고려한 특정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귀농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의 귀향농가는 농업경영형태에 있어서 소유농지가 전혀없이 순수 임차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며 농지의 매입보다 임차지의 확대를 통해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귀향농가의 증가는 산업화 이후 노동력부족에 따른 농촌의 경지이용을 저하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까지는 귀향농가의 비중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들어 증가 추세에 있고 귀향하는 경영주가 젊은 연령층이므로 이들에 의한 파급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과소지역으로서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귀향농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이나 영농조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여건과 생활시설의 개선 등 하부구조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主要語 : 귀향농가, 귀향, 산업화, 과소지역, 농촌

1. 서 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에서 1960년대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 과정은 농·공간의 불균등 발전과 도·농간의 격차를 유발시켜 離農을 촉진시켰다. 그 결과 인구집중에 따른 도시지역의 과밀현상과 농촌지역의 과소문제는 각기 다른 사회적·경제적 제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과밀문제는 일찍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으나 농촌의 과소문제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도시문제에 가려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이재덕, 1984).

오늘날의 농촌지역 과소문제는 이촌향도에 의한

인구감소가 직접적인 원인이며, 산업화의 과정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산업화 이후에 이촌향도는 가속화 되었는데 도시지역에서는 이농에 따라 산업예비군이 증가하였고, 이는 저곡가정책과 더불어 도시근로자의 저임금 유지의 기초(김홍상, 1991)가 되었으므로 도시의 공업부문은 급격히 성장하였다¹⁾. 반면에 농촌지역에서는 농가인구와 농가호수의 대폭적인 감소에 따라 농가 호당 경영규모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도시의 공업부문에 비해 상대적 농업생산성의 지위 저하는 이농을 가속화 시켰다. 특히 농촌 인구의 이농은 젊고 생산력이 높은 연령층에서 선별적으로 발생하였기 때문에 농업노동력의 노령화와 노동력부족을 초래하였고 결과적으로 농업경영을 비롯한 농가의 경제활동 위축으로 나타났다(정기환, 1993). 이러한

* 경북대학교 지리학과 강사

歸鄉農家の 發生原因과 適應過程

농촌 경제의 악순환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기적인 국가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서 농촌의 인구변화는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주로 농촌인구의 도시로의 이동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즉, 산업화 이후의 도시 지향적인 인구이동에 따른 농업노동력의 유출(김기혁, 1982)과 농촌지역의 인구 과소문제(오홍석, 1980)나 이주민의 도시적응(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민상기·정명채, 1990) 또는 이농의 결과 발생한 사회 경제적 변화를 밝히는 것(이중우, 1974; 류우익, 1981)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까지도 이촌향도는 지속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와 반대로 도시에서 주변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도시 인구가 농촌으로 역류한다는 점에서 산업화 이후의 이촌향도와는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지만 농촌으로의 이동이 반드시 영농목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도시의 비싼 지가나 쾌적한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경제활동은 도시에서 하면서 거주지만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비록 인구유입이 일어나더라도 농업경영이나 농업노동력의 직접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도시에서 생활하다가 영농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주하는 歸鄉農家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귀향농가는 아직까지는 주도적인 흐름은 아니지만 최근들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귀향목적도 다양하다.²⁾

따라서 본 연구는 사례지역의 미시적 분석을 통해 산업화 이후 귀향농가의 발생이유를 살펴보고, 귀향이 발생되기까지의 경로를 추적하여 귀향농가의 유형별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귀농 후의 적응실태를 분석하여 농촌의 과소문제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인구이동의 거시적 분석 결과는 전체적인 이동의 흐름은 알 수 있으나 개개인의 이동 동기에 대한 설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이동 경향에 대해서는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지만 귀향농가의 발생배경과 적응과정에 대

한 고찰을 위해 미시적 분석을 통한 행태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인간의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실증주의적 계량적 접근보다 質적 접근이 타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미혜, 1987).

연구방법은 사례지역내의 전체 귀향농가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한 면담조사를 하였다. 사례지역의 농가는 25가구이며 이들중 9가구가 분석대상이 되는 귀향농가이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는 귀농시기와 귀농당시의 연령에 따라 구분하여 歸農의 발생원인을 분석하였고, 귀농 후의 적응과정은 경영규모와 재배작물을 대상으로 귀농당시와 현재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경영규모는 피조사자의 진술에 의존하였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나타난 실제면적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사례지역의 선정은 상업적 작물의 재배가 우세하여 영농목적의 귀향농가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도시 주변의 농업지역을 선정하였는데 대구시와 인접한 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로 하였다

3) 사례지역 개관

대구시와 낙동강을 경계로 인접해 있으며 면 소재지로 부터 약 900m 떨어진 남쪽에 위치해 있다. 면 소재지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사례지역과 4km 정도 떨어져 중학교가 있지만 고등학교는 없다. 마을의 남쪽으로는 넓은 평야가 위치하여 낙동강의 제방까지 연결되고 있는데 농지의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green belt)내에 있으며 마을 뒤인 북쪽으로는 구룡성 산지와 인접하고 있다. 5년 전부터는 왕복 2차선인 사문진교에 의해 대구시와 연결되고 있는데 현재는 시내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그 이전에는 渡船에 의해 왕래하였고 마을 앞으로는 대구-고령간의 우회도로가 있다. 낙동강변에 위치한 농경지는 수리 조건이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질양토로서 배수가 양호하여 오래전부터 땅콩이나 약초의 재배가 이루어졌는데, 현재는 농경지의 70% 이상이 경지정리 되었고 미작재배와 수박의 시설재배가 우세하다.

사례지역은 36가구 가운데 25가구가 농가로서 농가율은 69.4%이다. 非농가로 분류된 11가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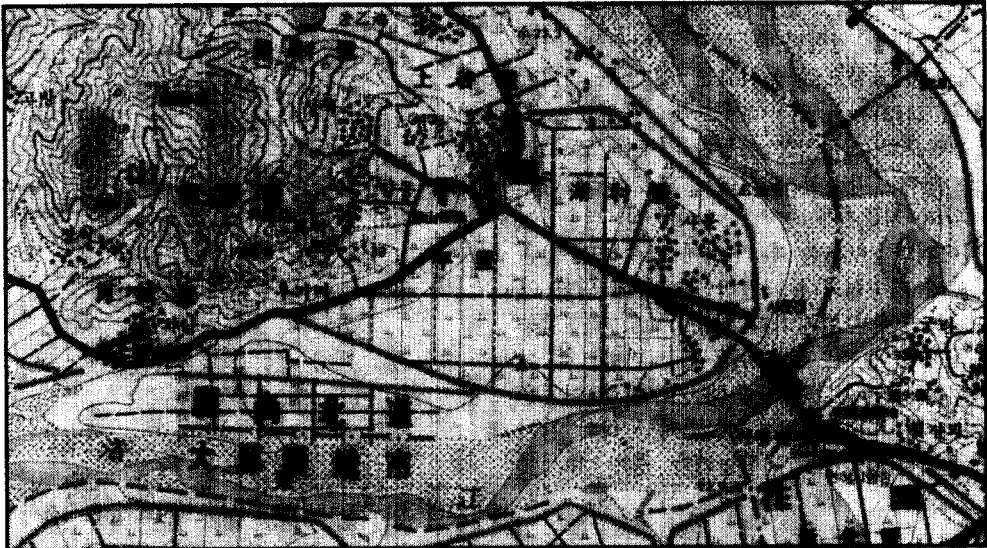


그림 1. 사례지역 지형도(1:50,000)

도자기 공장을 운영하거나 상업에 종사하는 3가구 외에는 60세 이상인 여자 단독가구 7세대와 78세 된 남자 단독가구이다. 이들은 본인 소유농지는 없지만 고향이라는 이유로 재촌하면서 자녀로부터의 보조금으로 생활하거나 外地의 자녀 소유 농지를 관리하고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으므로 재촌임대인의 성격을 지닌다. 약 300여년 전에 형성된 밀양 孫州의 동족촌이었으나 지금은 그 특색이 약화되었는데, 대도시와 인접하여 가구이동이 빈번한데도 불구하고 전체 가구수는 수십년 간 큰 변동이 없었다³⁾. 한편 사례지역내에는 유리공장과 도자기 공장이 위치해 있으나 이들은 규모가 작고 종업원은 외지에 거주하여 지역내의 농업경영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2. 귀향농가의 발생원인과 실태

산업화과정에서의 이촌향도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고용기회의 증대를 포함하는 도시의 吸引要因(pull factors)과 농촌의 낮은 생산력 및 불리한 여건이 壓出要因(push factors)으로 상호작용한 결과이다(Clarke, 1976).

우리나라의 이촌향도는 1960년대까지는 주로 농촌지역의 과잉인구가 도시로 배출(push)된 것이라면 1970년대 이후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이와 더불어 도시지역에 있어서의 비농업부문 고용기회가 증대됨으로서 도시지역이 농촌지역 인력을 흡수(pull)하는 방향으로 인구이동이 발생하였다(한두봉·김병률, 1992). 이에 대해, 최근의 귀향농가 발생은 도시인구의 농촌으로의 이동이란 점에서 이전의 이촌향도와는 차이가 있다.

1) 귀향농가의 정의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이 반드시 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의 이동만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농촌에서 다른 농촌지역으로 재배작물을 고려하여 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이동이 반드시 농업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⁴⁾. 단순히 도시의 거주기능만을 분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귀향농가는 영농목적의 이동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거주지만을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歸鄉農家의 發生原因과 適應過程

歸鄉이란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우리말 큰사전, 1991)을 말한다. 그런점에서 귀향농가란 '영농목적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만을 의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영농목적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를 모두 귀향농가로 한다. 따라서 도시에서 출생하였다더라도 영농을 위해 거주지를 농촌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귀향농가이지만, 이촌한 후 도시에 거주하면서 출퇴근에 의해 영농하거나 계절적인 이동에 의한 영농은 귀향농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한 귀향농가는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동을 의미함으로 농촌에서 다른 농촌으로의 단순한 거주지의 이동은 귀향농가가 아니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귀향농가가 증가 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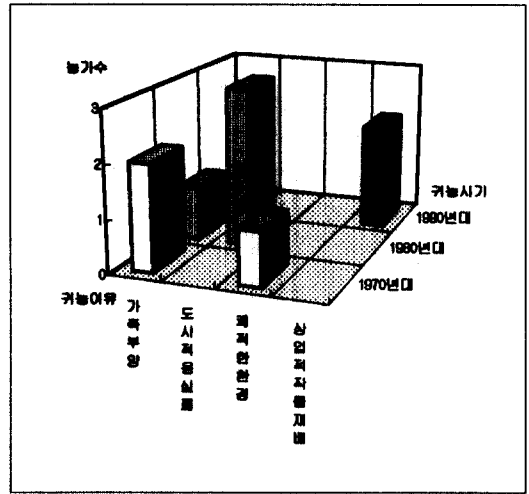


그림 3. 귀농시기별 발생원인(자료 : 현지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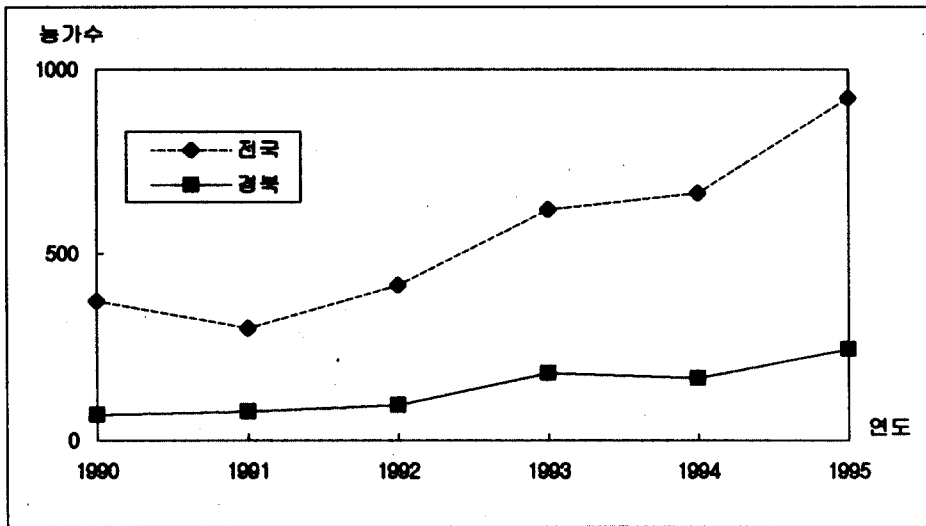


그림 2. 귀향농가 추세(자료 : 경상북도 농정과)

2) 귀향농가의 발생원인

사례지역의 농가 25가구중에서 1970년대 이후에 영농목적으로 귀향한 농가는 36%인 9가구로 나타난다. 대상농가를 전수조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례농가의 수가 적기 때문에 귀향농가의 경향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시기별 귀향농가의

발생이유는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사례지역 귀향농가의 귀농시기별 발생원인은 <그림 3>과 같다.

1970년대의 귀향농가는 3가구이다. 이들은 산업화 이후 이촌을 하였으나 건설현장 노동자나 제조업체 종업원등으로 안정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농촌의 쾌적한 환경을 고려하여 귀농(1가구)하였거나 가족부양(2가구)을 위해 귀농이 발

생되었다. 이들의 도시 거주기간⁵⁾은 대체로 짧고 귀농 당시의 연령은 20대로서 결혼은 귀향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촌이 도시에서의 고용기회(pull) 때문이 아니라 당시의 열악한 영농조건(push)은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인구 압출요인으로 작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사례지역에서 시설작물의 재배가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이들의 귀농동기에서 상업적 작물재배를 통한 소득증대의 목적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귀농의 발생이유가 쾌적한 환경이나 가족부양이긴 하지만 적극적인 농업계승의 의지보다는 도시적응에 실패한 이유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한편, 1970년대에 귀농한 3가구중에서 2가구는 귀농 이후에 결혼이 이루어졌고 1980년대 이후에 발생한 귀향농가(6가구)는 모두가 도시에서 결혼한 후에 귀농하였다. 그런점에서 1970년대 이전의 귀향농가는 영농목적에서 발생한 귀향농가라기 보다는 도시적응실패에서 비롯된 단순한 귀향의 성격을 갖는다.

1980년대에 귀향한 농가는 도시적응실패가 주요인이며 가족부양을 목적으로 한 한가구를 포함하여 4가구이다. 가족부양을 목적으로 귀농한 가구도 1970년대에 이촌하였으나 이후 2차례에 걸친 석유파동 때문에 악화된 도시생활과 가족부양의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의 귀향농가 발생도 도시적응에 실패한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 사례지역에서 시설작물의 재배가 활성화 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즉 농촌의 열악한 환경이 도시에 대해 막연한 동경을 갖게 했고 그 결과 1970년대에 이촌을 하였으나, 도시의 비전문직⁶⁾에 계속 종사하기보다는 농업소득이 더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 발생한 귀농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발생한 2가구의 귀향농가는 사례지역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으며 직접적인 영농경험 없이 도시에서 상업에 종사하다가 특정 시설작물(화훼)재배를 목적으로 경영주 연령이 40대 이후에 발생한 귀향농가 이다.

이상의 귀농시기별 발생이유에서 볼 때 최근의 귀향농가는 농업소득을 고려한 재배작물 때문이므로 가족부양이나 도시적응의 실패에서 비롯된 과

거의 경우와는 상이하다. 따라서 인구이동은 경제적 이유와 사회적 이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김기혁, 1982)고 할 때, 1980년대 이전의 귀향농가 발생은 도시생활 적응력부족에 따른 배출요인(push)과 사회적이유가 강하게 작용되었으나 1990년대 이후의 귀향농가 발생에는 상업적 작물 재배에 따른 농촌의 흡인요인(pull)과 경제적이유가 더 크게 작용된다고 할 수 있다.

3) 귀향농가의 실태

(1) 연령분포

귀농당시의 경영주 연령분포는 <그림 4>와 같다. 경영주 연령분포에서 볼 때 40대 이전의 연령층에서 귀농발생이 우세하여 농촌에서 도시로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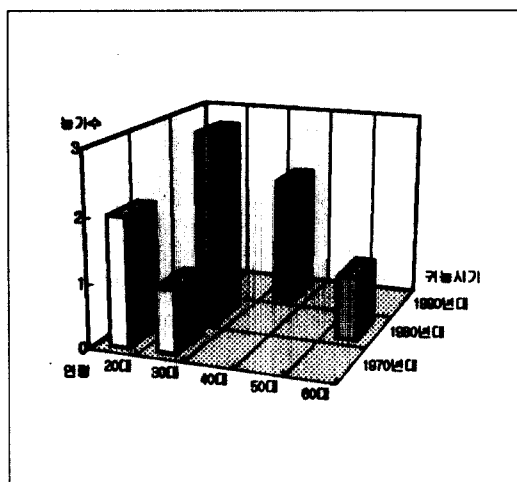


그림 4. 귀농당시의 연령분포(자료 : 현지조사 결과)

이동 뿐만 아니라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이동에서도 연령에 따른 선택적 인구이동이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20대에 귀농한 2가구는 가족부양을 목적으로 1970년대에 발생한 경우이며 60대 이상의 귀향농가는 1980년대에 발생되었는데, 원래 농촌에서 생활하였으나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여 1년 정도 생활한 후 도시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귀농한 경우이다. 그러므로 귀향농가의 발생은 경영주가 30~40대에 주로 발생되는

歸鄉農家の 發生原因과 適應過程

데 최근으로 올수록 연령의 重心은 상향되고 있다. 이것은 시기별 귀농의 발생원인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과거의 귀향농가는 열악한 영농여건 때문에 젊은 연령층에서 도시로 이동한 후 도시적응에 실패하여 발생한데 비해, 최근의 귀향농가는 도시에서 오랫동안 생활했지만 산업화 이후 상품작물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업소득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한 귀농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최근에는 교육기간이 과거보다 길어졌고 학교를 졸업한 후 도시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장래의 귀향농가 연령층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현재는 상품작물 재배를 통한 농업수익성이 귀농의 발생을 유인함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노년층에서의 귀농 역시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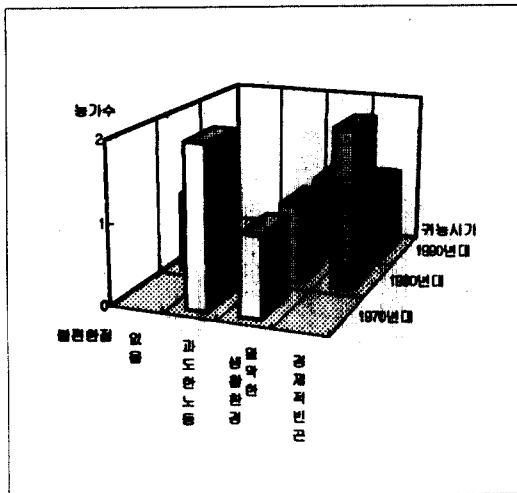


그림 5. 귀농당시의 불편한 점(자료 : 현지조사 결과)

(2) 영농경험

귀농전의 영농경험에 대해서는 직접 농사를 지어본 적이 있는 4가구와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부모의 영농을 통해 간접 경험한 5가구로 나타났다. 1980년대에 귀농한 4가구중에서는 3가구가 과거에 직접 영농을 하였는데 미작재배에 따른 열악한 영농조건과 낮은 수익성 때문에 이촌을 하였다. 그러나 도시적응에 실패한 후 영농

기계화의 진전에 따라 영농조건이 호전되었고, 시설작물재배를 통한 수익성을 고려하여 귀농하였다. 반면에 1970년대에 귀농한 경우는 한가구를 제외하고는 직접적인 영농경험은 없다. 이들은 부모의 영농을 통해 간접경험 하였는데, 산업화 이후 막연한 동경에서 도시로 이촌하였다가 도시적응이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가족부양의 목적으로 귀농하였다. 1990년대에 귀농한 농가의 경영주도 도시에서 출생하여 직접 영농경험은 없었으나 부모의 영농을 간접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귀향농가의 발생에는 과거의 영농경험이 중요하게 작용되며, 직·간접적인 영농경험이 전혀 없는 도시거주자의 귀농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같이 귀향농가의 발생에 과거의 영농경험이 중요하게 작용되는 것은 영농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경험부족에서 유발될 수 있는 영농실패에 대한 불안감이나 과도한 노동에 대한 두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로 해석된다.

(3) 생활만족도

귀농결과에 대해서 만족한다고 대답한 농가는 6가구이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농가가 3가구인 반면에 후회한다는 농가는 단 한 가구도 없었다. 이것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시설작물의 재배가 활발한 사례지역으로의 귀농결정에 대체로 만족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귀농당시의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는, 경제적 빈곤(3가구), 열악한 주거환경(3가구), 과중한 노동(2가구) 등을 지적하고 있다(그림 5). 귀농시기별로 볼 때 1970년대의 귀향농가는 과중한 노동력 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영농활동과 관련하여 당시에는 영농기계화가 미흡했기 때문이다. 한편 과도한 노동은 귀농 당시 뿐만 아니라 현재의 어려운 점으로도 지적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미작재배의 영농기계화가 미흡했기 때문이지만, 현재는 사례지역에서 수박등의 시설작물재배가 활발히 행해짐으로 농작업의 특성상 기계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1980년대의 귀향농가에서 경제적 빈곤을 지적하는 것은 도시의 적응에 실패한 후의 귀향이므로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

에서 귀농이 발생되었음을 암시한다. 1990년대의 귀향농가에서는 1980년대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빈곤과 열악한 생활환경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의 귀향농가는 도시적응실패에서 비롯된 경제적 빈곤이었다면 1990년대의 경제적 빈곤은 시설작물재배(화훼)를 위한 과도한 시설투자에 대한 부담 때문이므로 그 성격이 다르다.

반면에 열악한 생활환경은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이는 농촌의 낙후된 하부구조가 귀향농가 발생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데 장래의 귀향농가에 대해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인구의 이동이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 받더라도 생활의 질을 고려한 사회적 요인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농업의 수익성 증대 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의 개선⁷⁾이 우선될 때 귀향농가는 가속화되고 정착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한편, 현재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특히 자녀교육(5가구)의 문제를 들고 있는데 자녀들이 인근 도시지역으로 취학할 때 통학에 따른 불편이나 가족간의 거주지 분리에서 발생한 불안심리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사례지역내에도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있지만 이들 학교는 학급수가 적어서 교육의 수준저하에 대한 염려가 있고 도시지역에 비해 자녀들의 과외학습 기회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가 중복되면서 인근 도시지역에 취학시키는 경우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는 학군제에 의해 지역적 제한이 따르므로 자녀들에 대한 높은 교육열 때문에 이런 추세는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귀농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은 될 수 있으나, 대도시 인구의 농촌지역으로의 분산에 미치는 영향력은 자녀 교육 문제의 해결없이는 한계를 가질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3. 발생유형별 적응과정

1) 귀향농가의 발생유형

거주지의 이동경로에 따른 귀향농가의 발생유형은 도시에서 출생하여 농촌으로 이동하거나, 농촌

에서 출생하였더라도 도시로 이촌한 후 다시 농촌으로 이동한 경우로 한정된다. 농촌에서 도시를 경유하여 농촌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고향으로의 귀농과 타향으로의 귀농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귀향농가의 발생유형을 나타낸 것이 <그림 6>이다.

2) 유형별 적응과정

(1) 농촌→도시→고향으로 귀농한 경우

이 유형은 사례지역에서 가장 빈번한 유형(6가구)으로 197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지속되고 있다. 사례농가의 경영주는 현재 39세이며 고향인 좌학리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현지에서 생활하였다. 17세 때인 1970년대 중반에 도시에 대한 막연한 동경때문에 이촌하여 대구의 섬유공장 종업원을 시작으로 부산의 타이어 제조업체 종업원으로 약 6년간 근무하다가 23세 때 귀농하였다. 이때의 귀농은 부친이 와병중이었고 장남인 관계로 가족부양을 목적으로 발생되었지만 영농목적의 귀농이라기보다는 도시적응 실패에서 비롯된 고향으로의 이동에 불과하다.

결혼 후 위생시설을 포함하는 주거환경의 불편함과 부친과의 불화 때문에 24세 때에 다시 처와 함께 이촌하여 30세까지 대구의 섬유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이촌 후의 직업선택과정에서 섬유공장 근로자로 취업한 것은 이전의 경험이 작용된 듯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섬유경기의 불황 때문에 차라리 가족이 있는 고향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30세 때인 1988년 처를 포함하여 미취학인 2자녀와 함께 부모가 거주하는 고향으로 귀농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사례농가의 경우 귀농전에 직접 영농경험은 없고 부모의 영농을 통해 간접 경험한 경우이다. 당시의 귀농결정에는 가족부양이라는 사회적인 이외에 도시적응력 부족에 따른 안정되지 못한 도시생활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도시생활에 실패한 후에 고향으로 귀농한 것은 가족이 고향에 거주하고 있었고 부모의 소유농지가 있었으므로 다른 지역으로 보다는 고향으로 귀농이 발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산업화 이후의 이촌향도 과정에서 소유농지를 매각하고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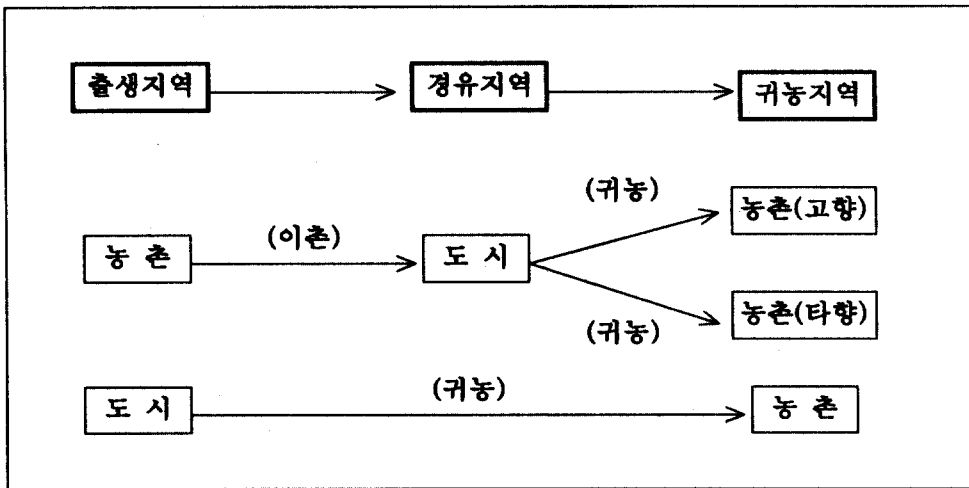


그림 6. 귀향농가의 발생유형

된 가구이동에서는 고향으로의 귀농이 제한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귀농당시의 경영규모는 부친 소유의 논 2,000평과 임차한 논 3,000평을 합쳐 5,000평 정도였으며 참외의 시설재배지 1,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4,000평은 미작재배하였다. 현재는 소유농지는 모두 매각하였으며 4,000평을 임차하여 3,000평은 수박의 시설재배중이고 나머지 1,000평은 미작재배중이다. 경영규모에 있어서는 귀농당시에 비해 소유농지가 오히려 감소했지만 그에 대한 불만은 없었다. 이것은 산업화 이후 離農家와 非農家의 농지소유가 증가함에 따라 재촌농가에서는 임차지 확보에 의한 농업경영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재배작물에 있어서는 귀농당시부터 시설작물을 재배하였지만 미작의 경영규모가 훨씬 컸다. 반면에 현재는 미작재배보다는 수박의 시설재배가 훨씬 우세하게 나타남으로 귀농 이후의 적응과정에서는 수익성을 고려한 상업적 작물의 재배가 확대되었다. 전체적인 경영규모가 귀농당시보다 감소한 것은 수박의 시설재배에 따라 경영가능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귀농당시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는 저곡가로 인한 경제적 빈곤을 지적하였으나 현재는 재촌하면

서 취학중인 3자녀의 교육문제⁸⁾가 가장 불편한 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당시의 귀농결정에는 만족하며 이촌하지 않고 고향에서 농사지며 살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2) 농촌→도시→타향으로 귀농한 경우

이 유형은 한가구에 불과한데 사례농가 경영주는 현재 73세로 고령이다. 의성군 봉양면에서 태어나 결혼하였으며 61세 때인 1980년대 중반까지 고향에서 영농하였다. 그 후 출가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농지를 매각한 후 대구로 이주하였으나 다른 직업은 갖지 않았다. 이촌 당시 이미 연령이 노령화 되었으므로 도시에서의 취업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없이 사는게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63세 때인 1987년에 고향친구의 소개로 처와 함께 사례지역으로 귀농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적 요인에서 도시적응실패가 귀농발생의 직접적인 동기이다. 지역내의 귀농발생은 고향으로의 귀농이 우세하지만 사례농가의 경우에는 이촌후 타향으로의 귀농발생유형이다. 이는 이촌할 때 이미 고향의 소유농지를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시에 거주하는 자녀와의 접근성 때문에 원거리의 고향으로 보다는 타향이지만 사례지역으로 귀농이 발생된 것이다.

귀농당시에는 소유농지 없이 사유지 2,500평을 임차하여 미작재배 하였다. 현재도 소유농지는 전혀 없으며 3,400평을 임차하여 사유지 1,400평은 미작재배중이고 국유지인 하천부지 2,000평은 약초를 비롯한 잡곡류를 재배하고 있다. 현재는 귀농 당시보다 경영규모가 확대되었으나 미작재배지는 오히려 감소하였다.

재배작물에 있어서는 수박의 시설재배는 전혀 없고 약초와 잡곡류를 재배하고 있다. 다른 사례농가와는 달리 수박의 시설재배를 통한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약초와 잡곡류를 재배하는 것은 타향으로 귀농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농업경영의 특성이 아니라 경영주가 고령이므로 노동력이 부족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러한 사실은 귀향농가의 경영주 연령이 재배작물이나 토지이용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한다.

사례농가의 경우 귀농당시에는 어려웠던 점이 별로 없었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노령이어서 과중한 노동력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자녀에게 부담주지 않고 살 수 있어서 당시의 귀농결정에는 만족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비록 그 성격이 크게 완화되기는 했으나 동족촌이기 때문에 타향의 외로움을 지적하고 있지만 노동력이 남아있는 한 이혼하지 않을 예정이다.

(3) 도시→귀농한 경우

직접적인 영농경험이 없는 2가구가 해당되는 이 유형은 1990년대 이후 발생한 귀향농가에서 나타난다. 사례농가의 경영주는 현재 45세로서 울산시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울산시에 위치한 제조업체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결혼했다. 28세 이후 4년간은 해외건설현장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며 귀국후 1980년대 중반인 32세 때에 대구로 이주하여 12년간은 상업에 종사하였다.

직접 영농경험은 없었지만 오래전부터 영농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화훼재배를 목적으로 1년 먼저 정착한 친구의 소개를 받아 44세 때인 1996년에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자녀는 도시에 남겨두고 처와 함께 귀농하였다. 따라서 직접 영농경험은 없고 부모의 영농을 통해 간접 경험한 사례농가의 귀농이유는 특정작물(화훼)의 재배가 목적

이다.

소유농지는 전혀 없었으나 화훼재배를 목적으로 한 귀농이었으므로 작물재배와 관련하여 자연조건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 1,200평을 임차하여 장미의 시설재배를 시작하였는데 영농규모나 재배작물의 변화없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사례농가의 경영규모 변화를 판단하기는 곤란하지만 재배작물의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한 경영규모의 확대는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귀농 당시에는 시설의 설치와 묘목의 구입 때문에 자금부족⁹⁾이 가장 큰 어려움이었으나 현재는 취학중인 자녀와 거주지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자녀교육을 가장 큰 애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귀농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영농수익을 계산할 수는 없지만 귀농결정을 후회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록 수익이 다소 낮더라도 가급적이면 이혼하지 않고 영농을 지속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이동경로에 따라 귀향농가의 유형구분을 하면 사례지역내에서는 농촌→도시→고향으로의 귀농, 농촌→도시→타향으로의 귀농, 도시→농촌으로의 귀농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이들 유형중에서 농촌→도시→고향으로의 귀농발생이 우세하며, 도시→농촌으로의 귀농 유형은 상업적작물 재배를 목적으로 1990년대 이후에 발생한 유형이다. 귀향농가의 발생유형에서 고향으로의 귀농이 우세한 것은 귀농의 발생이유가 가족부양의 목적일 때는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나 도시적응 실패등의 이유일 때는 고향에 가족이 거주하지 않거나 소유농지가 없을 경우에는 재배작물이나 도시와의 접근성 때문에 타향으로 귀농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4. 귀농시기별 적응과정

1) 경영규모

농지는 농업생산의 기초적 생산수단이며, 농업경영은 농지 소유와 경영의 일치 여부에 따라 자경과 임대차로 구분할 수 있다.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바람직한 경영방법으로는 자경의 원칙이 제시

歸鄉農家의 發生原因과 適應過程

되지만, 소유농지가 부족한 농가에서는 농지의 임차에 의해 경영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 사례 대상 농가의 경영규모를 농지소유관계에 따라 귀농당시와 현재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가족부양이나 도시적응실패에 따른 귀농이었므로 고향으로의 귀농이 우세했고, 이때 본인 소유농지는 없을지라도 부모가 소유한 농지가 있었고 주곡 위주의 작물재배가 행해졌으므로 경영가능규모가

표 1. 사례농가별 경영규모 변화

(단위 : 평)

경영규모 귀농시기 사례 농가		귀농당시			현재			증감유형		
		자경농지	임차농지	계	자경농지	임차농지	계	자경농지	임차농지	계
A	1970 년대	3,000	0	3,000	5,600	800	6,400	+	+	+
B		2,000	0	2,000	5,000	2,000	7,000	0	+	+
C		3,000	4,000	7,000	3,400	4,000	7,400	+	0	+
D	1980 년대	0	4,400	4,400	224	10,000	10,224	0	+	+
E		0	2,500	2,500	0	3,400	3,400	0	+	+
F		2,000	3,000	5,000	0	4,000	4,000	-	+	-
G		6,000	0	6,000	6,200	0	6,200	+	0	+
H	1990 년대	0	1,200	1,200	0	1,200	1,200	0	0	0
I		0	1,200	1,200	0	1,200	1,200	0	0	0
계		16,000	16,300	32,300	20,424	26,600	47,024	+	+	+

* 귀농당시의 자경농지는 부모의 소유농지 포함
자료 : 현지조사 결과

귀농당시의 농업경영형태를 농지 소유관계에 의해 구분할 때, 타인소유의 임차농지는 전혀 없는 순수자경농가(3가구)보다는 농지의 일부라도 임차하는 농가(6가구)가 많고, 특히 소유농지가 전혀 없는 순수임차농가(4가구)가 많다. 이러한 사실은 농지의 소유여부가 귀농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즉 산업화 이후에는 이농한 농가의 소유농지나 도시에 거주하는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증가함에 따라 농지임대차가 상대적으로 용이(우종현, 1996)하므로 비록 소유농지가 전혀 없는 경우일지라도 영농의사만 있으면 임차에 의해 농업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귀농시기별 귀농당시의 경영규모는 1990년대 이후에 귀향한 농가의 경영규모가 작고, 그 이전에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간에 큰 차이가 없다. 이것은 귀향농가의 발생목적이나 재배작물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즉 1980년대 이전의 귀향농가는

크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귀향농가는 지역연고가 전혀 없고 시설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발생된 귀향농가이므로 작물재배의 특성상 대규모 경영이 곤란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경영형태에 있어서 1970년대의 귀향농가중에서는 소유농지가 없는 경우는 전혀 없고 국유지인 하천부지를 임차한 C농가 외에는 임차농지가 없는 순수자경농가이다. 이것은 당시에는 인구압박이 컸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영농이 불가피했고 따라서 재촌농가의 임대요구가 많지 않았으므로 사유지의 임대차는 미약했음을 반증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귀향농가의 경우에도 당시에는 영농기계화가 미약했고 미작재배의 낮은 수익성 때문에 적극적인 임차경영 의도가 없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1980년대 이후의 귀향농가 중에서는 자경지의 경영규모(6,000평)가 너무 커서 임차 영농의 여력이 없는 한가구를 제외하고는 소유농

지보다 임차농지의 경영규모가 더 크고, 4가구는 소유농지가 전혀 없는 순수임차농가이다. 이것은 1980년대 이후에는 재촌농가의 노동력 노령화에 서 비롯된 임대차의 발생 이외에도 소유농지를 매각하지 않고 이농한 농가가 많았으며, 비농민의 농지소유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임대인의 필요에 의한 임대차의 발생이 불가피한 농지가 많았고(우종현, 1996), 귀향농가의 입장에서는 시설작물재배를 목적으로 경영규모확대를 원하더라도 비싼 농지가격 때문에 매입에 의한 농업경영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다.

현재의 경영규모를 귀농당시와 비교할 때 경영규모가 감소한 농가는 한 가구에 불과하므로 귀향

라 정착되고 있음을 반증한 것이다. 즉 소득의 증대로 인한 잉여자본을 생산수단인 농지의 확대에 투자하므로 지속적인 영농의사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소유농지가 전혀없는 순수임차농가(4가구)가 존재하는 사실에서 볼 때, 사례지역이 비록 시설작물의 재배가 활발하더라도 비싼 농지가격 때문에 농지의 구입에는 한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2) 재배작물

귀농당시의 토지이용상태를 통해서 귀농의 발생이유를 추론할 수 있고, 이후의 토지이용변화 고

표 2. 사례농가별 재배작물 변화

(단위 : 평)

재배작물 귀농시기 사례 농가		귀농 당시			현재			증감 유형		
		미작	시설작물	채소류, 기타	미작	시설작물	채소류, 기타	미작	시설작물	채소류, 기타
A	1970 년대	2,000	0	1,000	2,400	3,200	0	+	+	-
B		2,000	0	0	2,000	5,000	0	0	+	-
C		3,000	0	4,000	1,800	3,800	1,800	-	+	-
D	1980 년대	4,400	0	0	224	6,000	4,000	-	+	+
E		2,500	0	0	1,400	0	2,000	-	0	+
F		4,000	1,000	0	1,000	3,000	0	-	+	0
G		2,600	1,400	2,000	1,700	2,500	2,000	-	+	0
H	1990 년대	0	1,200	0	0	1,200	0	0	0	0
I		0	1,200	0	0	1,200	0	0	0	0
계		20,500	4,800	7,000	10,524	25,900	9,800	-	+	+

자료 : 현지조사 결과

농가는 적극적으로 영농규모를 확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경영형태에 있어서는 순수자경농가의 수는 한가구로 줄어든 반면, 농지의 일부라도 임차하는 농가(8가구)가 많고 임차농지의 규모확대가 더 크게 나타나는 사실에서 볼 때, 귀향농가의 경영규모확대는 주로 임차농지의 확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소유농지의 규모가 감소한 농가(1가구)보다는 증가한 농가(3가구)가 많다는 사실은 이들의 귀농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

찰을 통해서 귀농의 파급효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귀농당시와 현재의 재배작물의 변화를 사례농가별로 나타낸 것이 <표 2>이다.

<표 2>에서 보면 귀농 당시의 토지이용은 시설작물의 재배보다는 미작재배가 우세한데, 귀농 당시부터 시설작물을 재배한 농가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발생한 귀향농가들이다. 이는 197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귀향농가의 추세가 그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즉 1980년대 초반까

지는 사례지역내에서 시설작물의 재배가 활발하지 않았고 도시적용실패나 가족부양의 목적에서 귀농이 발생되었으며, 그 이후의 귀농은 수익성을 고려한 작물재배의 목적 때문에 발생한 귀농임을 의미한다.

현재의 토지이용은 미작재배보다는 시설작물의 재배가 우세한데 전체적인 경영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작재배농지는 절대면적에서 감소하였다. 또한 귀농당시보다 주곡의 재배면적이 증가한 농가는 단 한가구에 불과하지만 시설작물의 재배면적이 감소한 농가는 전혀없다. 이러한 사실에서 귀향농가는 재배작물의 수익성을 고려한 농업경영이 목적이므로 장래에도 귀향농가가 증가하고 귀향농가의 경영규모가 확대되더라도 귀농에 의해 주곡생산의 증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예측을 가능케 한다.

5. 결 론

농촌의 과소문제는 낮은 농업생산성과 불리한 생활여건에 따른 인구감소가 인과누적으로 작용된 결과이며 이촌향도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도시에서 거주하다가 영농을 목적으로 농촌으로 이동하는 귀향농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귀향농가의 발생이유와 적용실태를 미시적 접근을 통해 고찰한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향농가의 발생은 이촌향도가 가속화되었던 1970년대부터 이어져 왔는데, 과거에는 가족부양이나 도시적용실패등의 사회적 원인이었다면 최근의 귀향농가 발생은 재배작물의 수익성을 고려한 경제적 원인이 더 크게 작용된 결과이다. 귀향농가의 경영주는 40대 이하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므로 자녀들에 대한 열악한 교육환경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귀향농가의 발생유형은 이촌후 고향으로 귀농하는 경우가 많지만 직접적인 영농경험이 없는 도시거주자가 특정작물의 재배를 목적으로 귀농하기도 한다. 특히 최근의 귀향농가는 농업경영형태에 있어서 소유농지가 전혀없이 순수 임차에 의해 발생되기도 하며 농지의 매입보다 임차지의 확대를 통

해 경영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점에서 귀향농가의 증가는 산업화 이후 노동력부족에 따른 농촌의 경지이용을 저하를 완화시키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들의 귀농 후 적응과정에서는 수익성을 고려한 시설작물의 재배가 우세하고 특히 최근에 올수록 이런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장래에 귀향농가가 증가하더라도 주곡의 증산효과에는 한계를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농지의 자연적조건에 대한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 현재까지는 귀향농가의 비중이 미약하다 하더라도 최근 증가 추세에 있고 귀향하는 경영주가 젊은 연령층이므로 이들에 의한 파급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과소지역으로서의 농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귀향농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제도적 차원에서 영농자금의 지원이나 농지임대차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자금지원이나 영농조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교육여건과 생활시설의 개선 등 하부구조의 확충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註

- 1) 1960년과 1992년의 국내총생산(GDP)을 비교해 보면 농업어업은 39.6%에서 7.6%로 대폭 감소하였고 제조업의 비중은 12.1%에서 27.2%로,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30.6%에서 51.8%로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산업고용 비중의 변화를 1962년과 1990년간에 비교해 볼 때 1차산업은 63.8%에서 18.3%로, 제조업은 8.0%에서 27.3%로 변화했다(정갑영, 1993).
- 2) 전국적규모에서 볼 때 귀향농가는 1990년 371가구, 1991년 299가구, 1992년 413가구, 1993년 618가구, 1994년 662가구, 1995년 922가구로 증가추세를 보이며, 경상북도의 경우에도 67가구, 76가구, 94가구, 178가구, 164가구, 243가구로 파악되고 있다(경상북도 농정과 자료, 1996년). 한편 충청남도의 경우 1992년 이후에 귀향한 농가는 250여 가구에 이르는데 최근 들어 증가추세에 있고, 이들의 귀농이유는 부모님의 농사를 계승하기 위한 경우가 주류를 이루지만 도시생활의 적응실패

나 정년퇴직후의 영농목적등으로 다양하다(중앙일보, 1997년 2월 7일).

- 3) 김재영(46세)씨의 증언에 의하면 20여년 전에 비해서 이농때문에 집성촌(밀양 손씨)의 성격은 많이 약화 되었지만 전입가구가 많아서 전체 가구수는 큰 차이가 없다고 진술.
- 4) 권용우(1986)는 서울주변지역의 교외화에 관한 연구에서 중심도시의 거주기능이 주변지역으로 확대되는 거주교외화 현상과 중심도시의 제조업 기능이 주변지역에 확대됨으로서 고용기회의 창출에 따른 고용교외화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비농업부문에 종사함으로써 농업노동력의 직접적인 변화는 기대할 수가 없다.
- 5) 1990년대 이전에 귀농한 7가구 중에서는 14년간 서울에서 제조업체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귀농한 한가구를 제외하고는 도시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이며, 특히 5년 미만인 농가도 3가구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귀농한 2가구는 모두 도시에서의 거주기간이 10년을 넘는다.
- 6) 이들의 귀농전 직업은 건설현장 노동자 2가구, 섬유공장 근로자 1가구, 무직 1가구 이다.
- 7) 현재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자녀교육(5가구), 위생시설을 포함하는 열악한 주거환경(2가구), 시설작물 재배에서 유발된 과중한 노동력 부담(1가구), 그리고 지금은 그 성격이 많이 약화되었지만 동족촌에서 발생 될 수 있는 배타적인 분위기(1가구)를 지적하고 있다.
- 8) 사례지역내의 대다수가 현재 가장 불편한 점으로는 자녀의 교육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례지역과 500m정도의 근거리에서 초등학교가 있는데, 최근에는 사례지역 주변에 아파트가 건립되어 학생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고학년이 될 수록 전학하는 추세가 두드러진다. 중학교는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농촌인구의 감소에 따라 현재는 학년당 1학급에 불과하다. 그래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고, 고등학교는 없으므로 인접한 대구지역에 통학시키거나 시내에 거주하면서 다니고 있다.
- 9) 임차중인 1,200평에 장미의 시설재배를 위해 5개棟의 시설을 설치했다. 1개棟의 건설에는 시설비와 묘목구입비를 포함해서 약 1,5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지하수 굴착비용(450만원) 등을 합하여 전체적으로는 약 1억원 정도 소요되었다.

文 獻

- 권용우, 1986, 서울주변지역의 교외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기혁, 1982, 농촌인구이출이 농업노동력에 미치는 영향, 지리학논총, 9, 81~99.
- 김명희, 1994, 농촌노동력 감소에 따른 농업경영의 특성-밀양군 북부면을 사례로-,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석민 외, 1991, 한국자본주의와 농업문제, 도서출판 아침, 서울.
- 김원경, 1993, 거주지 선호 : 두 사람의 경우, 전환기의 한국지리, 교학사, 127~152.
- 김홍상 외, 1991, 한국 자본주의와 농업문제, 도서출판 아침, 185~188.
- 류우익, 1981, 농촌인구의 도시지향이동이 농촌지역에 미치는 영향, 지리학논총, 8, 33~43.
- 민상기·정명채, 1990, 이농·탈농의 도시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28.
- 박미혜, 1987, Ethnomethodology에 의한 병과 건강의 이해,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양춘, 1987, 공간발전이론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 41~62.
- 백산서당 편집부, 1983, 아시아의 농촌과 공업화 현실, 백산서당, 서울.
- 오홍석, 1980, 한국촌락의 과소실태와 진흥방안, 지리학, 22, 55~86.
- 우연섭, 1989, 도시주변농촌지역의 정치경제학적 접근 -진주시 주변지역을 사례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종현, 1996, 한국 임대차농지의 공간분포와 임대농가 행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덕, 1984, 도시주변 농촌지역의 인구이출현상 -청원군 옥산면의 사례연구-, 청주사범대학 논문집 13, 267~291.
- 이종문, 1994, 미시적 인구이동이론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논문집, 17, 248~249.
- 이중우, 1974, 인구감소지역의 지역성의 변화, 경북대 논문집, 18, 33~61.

歸鄉農家の 發生原因과 適應過程

- 정갑영, 1993, 한국의 산업조직, 법문사, 서울.
- 정기환, 1993, 농가의 성격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96.
- 정승일 외, 1982, 농촌의 인구이동 -합천군 봉산면을 사례로-, 지역개발논문집, 11, 17~33.
- 조창연, 1983, 농촌지역 주민의 이주특성, 공주사대 논문집, 21, 374~375.
-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991, 한국농업의 위기와 재편반향, 서울, 창작과 비평사.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84, 이농민의 도시적용과 사회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79.
- 한두봉·김병률, 1992, 21세기를 향한 한국농업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보고, 270.
- Turner II, B.L., Hanham, R.Q. and Portararo, A.V., 1977, Population pressure and agricultural intensity, *Annals of A.A.G.*, 67(3), 384~396.
- Clout, H.D., 1972, *Rural Geography*, Pergamon Press Ltd., Oxford.
- Wallace, I., 1985, Towards a geography of agribusines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9(4), 491~514.
- Bowler, I.R. and Ilbery, B.W., 1987, Redefining agricultural geography, *Area*, 19(4), 327~332.
- Johnson, J.H., 1974, *Suburban Growth*, Aberdeen University Press, Aberdeen.
- Clarke, J.I., 1976, *Population Geography*, Pergamon Press, Oxford.
- Kenji Kenneth Oshiro, 1976, Seasonal labor migration, farmers and their household: A report, *Science Reports*, 159~182.
- Black, R., 1993, Migration, return, and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Serra do Alvao, Northern Portugal,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41(3), 563~585.
- Morrill, R.L. and Dormitzer, J.M., 1979, *The Spatial Order*, Massachusetts, Duxbury Press.
- Ostergren, R.C., 1981, Land and family in rural immigrant communities, *Annals of A.A.G.*, 71(3), 400~411.
- Whatmore, S., 1993, Sustainable rural geographies?, *Progress in Human Geography*, 17(4), 538~547.

The Cause and Adaptation Process of Kwihyang Nongga

Jong-Hyeon Woo*

Summa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bout the cause and adaptation process of urban households going to rural areas for agricultural management(Kwihyang nongga) through the microscopic analysis of a case study.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s.

The cause of Kwihyang nongga before the 1980s was generally due to the social causes like the support of dependent family or rural-to-urban migrants' maladjustment in urban society. After the 1980s, however, it was related to the economic reasons such as the increase of households' income by commercial agriculture more than the social ones. Most of Kwihyang nongga was traditionally the households which came back to their native places, rural areas. Recently the urban households which did not originally come from rural areas are going to rural space because of the cultivation of high profit oriented agricultural products. Recent Kwihyang nongga increased the size of commercial

agriculture through leased farmland, not by a purchase of agricultural land. Even though the number of Kwihyang nongga is now a few, it is expected that the influence of Kwihyang nongga on rural society will be various and high because it consists of young generation.

The increase of Kwihyang nongga may be one of the ways to mitigate the decreasing rate of utilization of agricultural lands due to the labor shortage of rural areas after industrialization. To solve rural problems related to underpopul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active policies of helping Kwihyang nongga. The actions for Kwihyang nongga ought to emphasize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conditions and living facilities as well as financial aids and the improvement of farming conditions.

Key Words : Kwihyang nongga, return migration, industrialization, underpopulation, rural area

* Part-time Lecturer, Departmen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